

“의사들, 대학 연고지 근무 선호...전남에 의대 필요”

목포시·순천시·목포대·순천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2차 토론회 전남 공공의료 취약...지역 간 의료 불균형 개선위해 반드시 설립돼야

의사들은 수련기관과 대학 소재지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사 인력 확보가 힘들 수밖에 없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2차 도민토론회를 열어 지역 의료현실과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 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은 “의사들은 수련기관과 대학 소재지 근무를 많이 선호한다”며 “대구, 부산, 서울 등 소득이 높고 의과대학이 몰린 대도시 중심으로 의사가 많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구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100%가 대구 소재 대학을 졸업했으며, 부산은 87%가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실제 전남지역 종합병원의 평균 전문의 수는 26명으로 2차 민간병원 평균인 5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임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취약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으로선 지역 핵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방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한 캐나다와 노르웨이,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 인재를 의사로 양성하고 근무하도록 지원한 결과 의무복무 이후에도 68.9%가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희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은 “전남의 공공의료는 모두 공공보건의료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개선, 전남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바이오산업 의과학자 양성 등을 통해 전남의 미래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윤호 고흥우호21병원장은 “취약지역 경영이 더 어려움에도 더 많은 돈을 들여 의사를 구해야 한다”며 “더 많은 임금을



지난4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전남의 의료현실과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란 주제로 도민토론회가 열렸다.

제시해도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위기에 놓인 지방병원이 많다”고 토론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의사인력 구하기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며 “전남에서도 지역의대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해 취약지역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정부가

의대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에 진척이 없어 도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의대 설립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번 두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료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문제 고민·대안 제시’ 청년인재 지원

전남도 ‘청년 무한도전프로젝트’ 20팀 선발...최대 1천만원

전남도가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에게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6일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 무한도전프로젝트’를 추진할 20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 무한도전프로젝트’는 만 18세에서 39세로 이뤄진 도내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68개 팀이 지원해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오는 11월까지 희망 분야에서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공헌과 지역문제 해결을 주제로 농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신장개입 소상공인 홍보, 마을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지역 봉사활동, 지역홍보 및 관광, 교육, 전통문화 증진 등 다양한 과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도내 청년 500명을 인터뷰해 청년의

일상을 예시로 출간하겠다는 ‘목포청년네트워크’, 크로스핏을 농촌에 접목해 새로운 생활체육문화를 만들겠다는 ‘파머스핏’,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쓰레기 줄기와 조깅을 접목한 줌깡과 팻캐스트를 제작하는 ‘얼스앤어스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고미경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정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수시컨설팅과 성과공유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선발팀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이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1501명의 으뜸 인재를 선발해 지원했다. 도내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 명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과 대학교 졸업 학원 재학생 5천800명에게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3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으뜸 인재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살림 나아진 전남...가구소득 4981만원 전년대비 4.3% 증가

2019년 분석...증가율 전국 2위

민선7기 들어 전남의 가구당 소득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가구당 소득은 2017년 4701만원에서 2018년 4777만원으로 1.6% 증가한데 그쳤으나, 민선 7기 첫 성적표인 2019년 가구당 소득은 4981만원으로 전년대비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에는 5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해 전국에서 인천(6.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블루이코노미, 전남형 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 비전 수립 ▲2년 연속 7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국비 확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남도장터,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등 농업유통체계 혁신 ▲농어민공약수당 등 소득안정화 시책 등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

운 시기에도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역별 가구의 실질적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다. 시·도당 약 2만 가구의 표본을 선정해 과밀학급 문제가 큰 결림돌로 꼽힌다. 가구당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교직원 1·2차 백신접종 8월까지 완료한다

정부, 2학기 전면 등교 준비...과밀학급 해소 등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며 2학기 유·초·중·고교생의 전면 등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라는 전면 등교를 위한 우선 과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교직원들은)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접종을 통해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mRNA 계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해당한다. 화이자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로, 11~12주에 달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간격보다 짧아 여름 방학 기간에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다. 7일부터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역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 다른 교직원과 함께 여름방학에 백신을 맞기로 했다. 그간 여름 방학을 이용해 교직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실은 알려졌다나 2학기 시작 전에 2차 접종까지 끝내겠다고 방역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세 미만에서 AZ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못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도 방역 당국은 이달 중으로 예약을 받아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우선 과제를 해결했음에도 남아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전면 등교로 교내 밀집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큰 결림돌로 꼽힌다. 그렇지만 교원 확충, 교실 확보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만만치 않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은 고3을 제외하고는 없어 등교 이후 학생 간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이동 검체를 운영하는 등 학교 방역 조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순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통해 공개한다. /연합뉴스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민독심 삽니다. 010-6837-4700

202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출할 수 있음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합학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재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원)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81186
전형일시	2021. 6. 23(수) 10:00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7. 7(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형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과제201 - 115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05-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광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가.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05-9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면적	종류	기명	중정	사용 형태	주요 경리치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1-A	10	국지 도로	317	광산구 삼거동 대로 3-70	광산구 삼거동 427-5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B	10	국지 도로	95	광산구 삼거동 소로 1-A	광산구 삼거동 428-1도	일반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종도	변경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A	• 도로 신설 B=10m, L=317m	• 광주시립요양병원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로 1-B	• 도로 신설 B=10m, L=95m	• 광주시립요양병원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1. 6. 7. ~ 2021. 6. 21. (15일간)
• 장 소: 광산구청 건설과(5층), 삼동동 행정복지센터

3. 의견제출 방법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건설과(062-960-8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3차)

주식회사 현성에프엔티(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권원은 회사의 주식 정량(30,000주)을 현대이텍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한 바, 이 주식양수도거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기타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출 대상: 주식회사 현성에프엔티의 채권 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 이의제출 기간: 2021년 5월 17일 ~ 2021년 6월 17일
- 이의제출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료로 398번길 30. 4층 관리회계팀 (070-7771-8064) 2021년 6월 7일 주식회사 현성에프엔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면로 31(현성T빌딩) 대표이사 박하림

산행안내

6월13일(일)
▲광주KJ산악회 6월13일(일) 경남 남해 & 금산도부계곡 산행, 연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지국안내

북구	동구	남구	서구	광산구
• 동 광 266-1920	• 남 광 673-6836	• 남 부 673-6836	• 광 천 382-5788	• 윤 남 952-1687
• 문 흥 266-1960	• 동 명 222-9054	• 백 곡 651-1833	• 상 무 372-2352	• 월 곡 959-1920
• 북광주 525-3761	• 동 부 225-6001	• 봉 선 673-6836	• 서광주 973-2350	• 철 단 973-2900
• 신 안 222-8171	• 중 앙 222-9054	• 송 하 675-6605	• 중 앙 955-0451	• 화 정 369-1625
• 양 산 571-7658	• 중 장 222-8171	• 진 월 671-7276	• 윤 천 376-7153	
• 오 치 266-7601			• 치 평 376-6511	
• 용 봉 433-1503			• 치 암 603-0311	
• 우 산 433-1503			• 화 정 369-1625	